



## 목회 및 치유 상담 교육에 앞장서는 정태기 박사와 박성자 여사

정태기 박사는 목회 상담과 치유 상담 분야에서 저명한 인물이다. 정태기 박사는 한국 치유상대학원 대학교의 초대 총장을 역임했으며, 2대 총장을 거쳐 현재 명예총장과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아내 박성자 여사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 여교역자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1997년 남편과 함께 크리스찬치유상담연구원을 설립하여 기독교 치유 사역에 크게 기여하였다. 박성자 여사는 이 연구원의 상임이사로서 활동했다. 정태기 박사는 산과 바다와 하늘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섬에서 어린 시절을 지냈다. 이 섬은 이후 “컴 어워즈”에서 전 세계 230개 살기 좋은 곳 중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1973년, 정태기 박사는 미국에서 학업을 시작할 때에 가족 비자 문제로 아내와 두 어린 딸을 한국에 두고 떠나야 했다. 그는 1978년에 시카고에 있는 Northern Baptist Seminary에서 신학 석사(M.Div.) 과정을 마쳤으며, 이후 Claremont School of Theology(CST) 목회학 박사(D.Min.) 과정으로 입학했다. CST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시카고 대학교와 함께 미국의 명문 신학교로 평가받았으며,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들이 재직하고 있었다. 1980년에는 7년간 떨어져 있던 가족이 클레어몬트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의 두 딸은 클레어몬트 시 Sycamore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클레어몬트와의 인연을 더욱 깊어졌다.

1981년부터 1983년까지 정태기 박사는 켄터키 주립 정신병원에서 2년간 임상 인턴십을 진행했다. 1983년에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 목회 상담학 교수로 임용되어 2004년에 은퇴했다. 정태기 박사와 박성자 여사는 한국에서 치유와 목회 상담 운동을 선구적으로 이끌었다. 1984년부터 라디오와 TV 방송을 통해 치유 목회 상담을 소개하며,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이 운동은 한국 전역에서 목회 상담과 치유 사역의 변혁적인 운동으로 발전했다.

1997년에 두 사람은 크리스찬치유상담연구원을 설립했다. 지난 28년 동안 이 연구원은 5,4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2박 3일 동안의 영성 치유 프로그램과 부부성장 프로그램에는 2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다. 이러한 노력은 2014년 대한민국 정부의 인가를 받은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 설립으로 이어졌다. 현재, 이 대학에는 14명의 전임 교수가 지도하고 있으며, 석사 과정 재학생 150명과 박사 과정 재학생 20명이 학업에 매진하고 있다.

정태기 박사는 한국 목회 상담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인정받아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는 2012년 5월 정태기 박사에게 명예 신학 박사(D.D.) 학위를 수여했다. 이는 CST 13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정태기 박사와 박성자 여사의 헌신적인 치유 사역, 교육,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은 신학과 상담 분야에서 미래 세대의 지도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